

우리 모임에선

성북경찰서 보궁순례



성북경찰서불자회는 5월 27일 오대산 상원사와 월정사를 방문하는 사찰순례법회를 실시했다. 80여 명이 동참한 이번 순례법회는 상원사 적멸보궁에서 성북서 경승실장 정수스님의 지도로 108배를 하고 상원사 주지 정념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또한 월정사를 방문해 성보박물관과 석조보살좌상 등을 둘러보았다.

불기법 춘계체육대회



한국불교기자협회는 5월 26일 일산 동국대학교 농장 야구장에서 춘계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 사소속 기자 및 가족 60여 명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축구와 발야구 시합을 펼치고 온 가족과 함께 '럭비공 뺑기' 등 명랑운동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회원들은 일산 불교종합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었다.

행자부 불자회장 신기윤씨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불자회는 5월 28일 오후 7시 긴급 총회를 열고 회장 등 일원진을 새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신기윤 서기관(인사국)은 회장에, 과익호 사무관(인사국)은 교무부장에, 남시우 사무관(인사국)은 기획부장에, 김희정 부장(인사국)은 기획부장에 각각 선출됐다. 이번 총회는 하재춘 행자부불자회장의 전보발령에 따라 마련됐다.

철불합 환경법회

철도청불교협의회와 성북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는 4일 오전 12시 30분 사나사 대웅전에서 화엄스님을 법사로 초빙해 환경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1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법회에 이어 불교법우회는 사나사 계곡 일대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수도권 일대 청정지역인 사나사 계곡의 환경을 정비하지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실시됐다.

답사모임 가람 찾아 佛心 닦기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닫기 힘든 폐사에서 묵묵히 치며 육법공양을 올리고 석가모니 정근과 108배를 하는 불자들의 모임이 화제다. 불교유적답사라고 하면 오래 이룬 사찰을 방문해 국보, 보물급 불교문화재를 관람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들 모임은 유적 사찰이나 성보만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둘러보는 예전의 답사 형태를, 예를 올리며 신심을 다지는 신행 현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석불연구회가 강원도 원주 용운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앞에서 예를 하는 모습.

또한 답사 여정에서 허술하게 관리되는 성보를 발견하면 그 주변을 정리하고 관할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성보 지키기'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와 같이 답사를 자신의 신심을 다잡는 신행의 현장으로 삼는 주요 답사 모임에는 '한국석불선양회', '불교유적답사회', '아제아제 불교문화답사회', '터사랑', '여행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이 있다.

지난해 3월 창립된 한국석불선양회는 전국의 초야에 묻힌 석불만을 찾는 답사단이다. 산기슭 깊숙이 인적 없는 곳에 서 있는 석불만을 찾는 것은, 유명 사찰의 대웅전에 봉안된 부처님과 같은 존상(尊像)이지만 그에 걸맞은 예경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석불선양회가 답사지에 도착해 가장 먼저 석불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육법공양 등의 예를 올리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또한 한국석불선양회는 5월 13일 충북 괴산 마애불명사당을 찾은 13차 답사에서 무속인의 해탈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는 한편

불교문화답사회는 답사에 처음 동참한 사람들에게 사찰 예절을 가르치는 시간을 갖는다.

터사랑과 '여행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사찰의 새벽, 사시에불에 참석하는 것으로 답사의 일정을 시작한다. 터사랑의 경우 답사 일정을 '무박2일'로 잡고 있는데, 이는 새벽 3~4시에 도착해 새벽예불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여행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 여불사도 사시불공에 참여함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의 참 의미를 깨닫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석불선양회 이규인 회장은 "예불, 정근, 발원 등은 지금껏 피상적으로만 대했던 불교유산의 가치를 몸으로 느끼고, 그 과정에서 신행의 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ooou@buddhapia.com

한국석불선양회 방치된 돌부처 발굴 보호조치

불교유적답사회 폐사지 찾아내 당국에 복원건의

아제아제답사회 사찰방문 108배·석가모니 정근

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예상치 못했다. 폐사지 전문 답사회인 만큼 해당 사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지 않고서는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유적답사회는 폐사지 보존 상태를 파악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경남 합천군 가회면 영암사지를 답사할 때에는 20여 년 전 홍수로 소실됐던 탑의 일부를 찾아내 지자체에 복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20, 30대 청년 불자들의 모임인 아제아제 불교문화답사회 역시 일주에서 합정한 채 경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답사를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대웅전을 3바퀴 정근하며 돌고, 미리 준비한 공양물을 불단에 올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108배, 석가모니불 정진, 발원문 낭독 등의 손으로 답사의 일정을 마칠 만큼, 답사를 신심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아제아제

게시판

알림

- ▲폐식용유 수집=자양사회복지관은 환경보존을 위해서 각 가정 및 영업소에서 처치 곤란한 폐식용유를 수집한다. (02)458-1664
▲시민선방 철야정진=선학원 시민선방은 9일부터 매일 둘째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02)732-3327
▲정신지체장애아동 미술치료=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5일부터 오후 2시 정신지체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시간을 마련한다. 참가비는 무료. (051)868-0750
▲강좌
▲여름정기강좌=마야문화원은 6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제2기 여름 정기강좌를 마련한다. 불교, 건강, 전통교양, 어학, 특별강좌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02)722-1050
▲건강관리=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복지관 강단에서 '건강 관리'를 주제로 연강을 실시한다. (02)385-1351
▲영어교실 자원봉사자=자양사회복지관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어초반' 및 '회화반'의 진행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458-1664
▲가정봉사원=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세탁, 식사보조 등의

'평화운동 이렇게...'

좋은벗들 1~29일 통일강좌

(사)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1일 '평화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6기 통일대화마당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평화의 이론과 현실'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조민(통일연구원) 씨는 "남북한간의 통일문제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임과 의식, 행동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강좌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부터 2시간 동안 정동회관 3층 강단에서 진행된다. (02) 587-8996



부산세관 관우불자회가 5월 31일 부산 관음사에서 봉행한 법회 모습.

"불성 깨우는 불자 되겠다"

부산세관불자회 재도약 발원 교에 한 묶음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지금까지 사찰순례법회 이외에는 뚜렷한 신행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2 창립을 서원하는 이번 법회는 부산 불교계의 관심을 적잖게 모았다. 이날 현후길 회장은 "교리 공부, 정기법회, 사찰순례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의 불성을 일깨우고 포교하는 불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지하철 '자비의 말씀' n-TOP 서 본다

풍경소리 016·019도 추진

전국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풍경소리(대표이사 성운스님)의 '자비의 말씀'을 휴대전화로도 볼 수 있게 됐다. 풍경소리는 무선 인터넷 전문 회사 엠플(사장 최영철)과 기술 제휴를 맺고, 5월 25일부터 SK텔레콤 011 무선인터넷 n-Top을 통해 '자비의 말씀'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011 가입 이용자라면 누구나 휴대전화의 n-Top 서비스에 접속, '자비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드는 글귀를 친구나 연인의 휴대전화로 메시지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오종욱 기자

"사회 밝히는 목탁"

대전불교 언론인회 창립

대전지역 언론계 포교의 첨병으로 나선 불자 언론인의 모임인 대전불교언론인회가 창립됐다. 대전KBS, 대전MBC, TJB,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신문 등의 불자 언론인 50여 명은 5월 25일 백제불교회관에서 대전불교언론인회 창립총회 및 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감사 주지 장곡스님과 연회사 주지 종실스님이 지도법사로 추대됐고, 대전MBC 김종환

Large advertisement for 'Snow Mountain White Jade Buddha' (雪山白玉佛) featuring images of the Buddha statue and calligraphy.